

News

금융당국, 50년 주담대 한도 줄인다…일반형 특례보금자리론 중단

노컷뉴스

<https://zrr.kr/DtQI>

금융당국이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의 한도산정 만기를 최장 40년으로 제한하고, 가산금리도 적용해 대출 한도 축소에 나선다

DSR 규제를 강화함으로써 면밀히 관리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

고객 뺏길라 4%대 예금 늘리는 은행들…인뱅도 경쟁 가세

머니투데이

<https://zrr.kr/RQRF>

은행권에서 연 4%대 예금이 늘어나는 가운데 인터넷은행도 예금금리 인상행렬에 가담

지난해 말 대규모 머니무브를 일으켰던 고금리 예금의 만기가 돌아오자 다시 은행권이 금리 경쟁에 나섰다는 관측이 나온다

“주담대도 맘껏 못해”…‘중저신용자 대출’ 기준 완화 읍소하는 인뱅

헤럴드경제

<https://zrr.kr/4TN4>

중저신용자의 대출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 취급해야 하는 인터넷은행들이 한계에 부딪히며 당국의 규제 완화를 고대

가계대출 급증 '주범'으로 몰리며 이같은 방법도 요원해졌기 때문

저축은행, 내년 7월부터 다중채무자 총당금 더 쌓는다

머니S

<https://zrr.kr/qW6O>

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3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의결

내년부터 여러 금융사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 대출에 대한 저축은행의 대손총당금 추가 적립이 의무화

보험회사 성과급 회계처리 논란…아직 명확한 기준 없어

파블릭뉴스

<https://zrr.kr/6BI4>

단기 비용처리 시 'CSM 부풀리기' 효과

금융당국 "결국 성과급을 미래 예산으로 잡느냐 잡지 않느냐의 문제"

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, 국회 법사위 계류… 재논의

파이낸셜뉴스

<https://zrr.kr/aDqX>

'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'이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

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이 통과되면 보험 소비자는 앞으로 병원을 방문해 서류를 발급받는 등의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됨

국내 금융사, 中 부동산업체 익스포저 200억 그쳐

아시아경제

<https://zrr.kr/dPaJ>

전체 중국 부동산업체 익스포저는 3703억

국내 금융시장 영향 미미…추가 조사 필요

증권사 지점 통폐합 바람…대형·전문화 전략 속도

데일리안

<https://zrr.kr/9QGG>

대신·신한·KB·NH證 등 영업점 줄여 통합점포 신설

상반기 853곳 전년比 30개 ↓…하반기도 추가 감축